

순천의 딸 홍진의 아쉬운 준우승

KLPGA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양수진에 역전패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승을 노린 순천출신 홍진의(22·롯데마트)가 '경험 부족'을 이기지 못하고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홍진의는 21일 김해 가야골프장(파72·6664야드)에서 열린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2타를 잊고 준우승(3언더파 213타)에 만족해야 했다.

보기는 3개를 하고 버디는 1개에 그친 홍진의는 이날만 4타를 줄인 양수진(22·정관장·6언더파 210타)에게 우승트로피를 넘겼다.

홍진의는 전날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에 오른 뒤 고등학교(순천청암고) 때까지 학교 수업과 골프를 병행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새삼 주목받았다. '공부하는 골프'라는 흔치 않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친김에 첫 우승까지 노려봤지만, 번번이 퍼트가 막을 듣지 않아 양수진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여전히 긴장하고 골프를 즐기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자평한 대로 중요한 순간 스스로를 다잡지 못하고 흔들린 것이다. 수백 명의 갤러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챔피언조에서 경기한 것도 처음이었다.

대회를 모두 마치고 시상식장에서 만난 그는 "긴장도 하지 않고 재미있

게 잘 쳤는데 퍼트 거리를 조금씩 더 본 것 같다"며 패인을 분석했다.

홍진의, 흥다경(23·율포유)과 함께 챔피언조에서 경기한 양수진은 "후반으로 갈수록 긴장했던 상대들에 비해 제가 유리했다고 본다"면서 "우승도

해 본 사람이 또 하기가 쉬운 만큼 오늘 같이 친 선수들이 어서 첫 승을 하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절실히 첫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홍진의는 주눅들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규투어 입문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또 하나의

큰 경험을 얻은 것에 의미를 뒀다.

한편 순천 대석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골프채를 잡은 홍진의는 골프 시작 9년 만인 2009년 KLPGA 드림투어를 통해 정회원으로 입회했고, '2009 그랜드 점프투어' 첫 데뷔전에서 우승의 감격을 맛본 바 있다.

/연합뉴스



21일 김해 가야골프장(파72·666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홍진의가 2번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KLPGA 제공

류현진, 홈런 두방 맞고 5실점…3승 실패

'괴물 투수'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디저스)이 시즌 3승 수확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2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더블헤더(DH) 1차전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았으나 홈런 2방을 포함해 8안타를 얻어맞고 5실

점했다.

류현진은 5-5로 맞선 7회말 미운드를 키니 잔스에게 넘겨 경기결과와 상관없이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8일 피츠버그전과 14일 애리조나전에 이어 3연승을 노렸으나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류현진은 26일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 선발 출장해 다시 3연승에 도전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추신수, 3안타 3볼넷 결승 득점 맹활약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개인 최다 연속경기 출루기록을 경신한 미국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의 '톱타자' 추신수(31)가 출루율에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오파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크리스 존슨(애틀랜타·이상 23개)을 1개 차로 제치고 내셔널리그 최다 안타 1위에 올랐다.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개인 최다 연속경기 출루기록을 경신한 미국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의 '톱타자' 추신수(31)가 출루율에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오파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크리스 존슨(애틀랜타·이상 23개)을 1개 차로 제치고 내셔널리그 최다 안타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김수범 왼발 광주 FC 살렸다

고양 Hi FC전 데뷔 동점골 1-1 무승부 이끌어



광주 FC 수비수

김수범(사진)이 프로 데뷔골을 극적인 동점골로 장식했다.

광주 FC가 지난 20일 광주 월드컵경

기장에서 열린 고양 Hi FC와의 K리그 칠린지 5라운드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최하위 고양은 상대로 안방 첫 승을 신고하는 듯했지만 폐배 직전 터진 김수범의 프로 데뷔골로 광주는 귀중한 승점 1점을 몰렸다.

부상에서 돌아온 미드필더 김은선을 내리고 수비를 둑은 광주는 전반전 고양과 수비 싸움을 벌였다. 후반전 광주의 빠른 퍼스가 빛을 발했지만 고양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

후반 23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수비수 박희성이 골문 앞에서 가까스로 공을 걷어냈고, 후반 31분에는 고양 윤동현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끌기 퍼 김지성이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김수범은 "감독님께서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올라가라고 주문하셨다.

득점 상황에서 (이)승기 형이 생각했다.

평소 승기 형이 잘하던 플레이

이로 그동안 선배들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한 것 같다. 실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동점골을 넣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안방에서 부산과 경기를 치른 K리그 클래식의 전남은 홍진기와 웨슬리가 시즌 첫 골을 기록했지만 임상협에게 두 골을 내주며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라권 우승

윤종현이 완봉승으로 광주일고의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전라권 1위를 이끌었다.

윤종현은 지난 20일 KIA 함평 구장에서 열린 순천 효천고와의 주말리그 전반기 최종전에서 완봉승을 거뒀다.

5-0으로 효천고의 7연승을 저지한 광주일고는 6승1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승자승으로 1위에 올랐다.

효천고에 이어 고교야구 차명진을 상대로 1회 광주일고 텁타자 김진휘가 좌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로 출루했다. 2사 3루에서 4번 정기훈은 우중간 3루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3회 김진휘의 홈

스틸로 점수를 추가한 광주일고는 1루수 실책으로 3-0까지 달아났다.

4회에는 김원욱의 2타점 적시타를 더해 승기를 잡았다. 박규민은

7.1이닝 1피안타 2사사구 12탈삼진 무실점의 활약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동성고도 4-0으로 광주일고를 기록했다.

진흥고도 전주고를 4-0으로 꺾으면서 4승3패를 기록했다. 전주고는 7전 전패다.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동성고 12개의 탈삼진을 뽑아낸 에이스 박규민의 호투로 화순고를 6-1로 꺾었다.

0-0이던 7회, 동성고가 2사 만루에

서 고수철의 밀어내기 불넷으로 선취점을 기록한 뒤, 이제무의 2타점 적시타를 더해 승기를 잡았다. 박규민은

7.1이닝 1피안타 2사사구 12탈삼진 무실점의 활약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진흥고도 전주고를 4-0으로 꺾으면서 4승3패를 기록했다. 전주고는 7전 전패다.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동성고 12개의 탈삼진을 뽑아낸 에이스 박규민의 호투로 화순고를 6-1로 꺾었다.

0-0이던 7회, 동성고가 2사 만루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체육관 4월 25일(화) 전남 강진 터볼

▶광주체육관 4월 25일(화) 전남 강진 터